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2년 12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 **2022년 12월 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대림절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를 위해 구유를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추가적인 희생과 기도의 형식으로 구유에 ‘짚’을 더 넣어라. 그리고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대답의 형식으로 아기 이불을 준비하여라. 이 모든 것은 크리스마스날 아침 너희의 진심 어린 기쁨을 배가시킬 것이다. 희생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듯이 희생에 대한 보상 또한 마음속에서 반향된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거룩한 사랑이란’ 진단지: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9238>

■ **2022년 12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친절함이나 좋은 생각, 또는 사랑어린 지향은 미래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마라.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너

희는 보통 어떤 기회가 나타날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유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의 은총은 죄악적인 태도의 영향을 무찌를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을 위한 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것이 내가 자주 언급하는 바로 그 승리다. 이것이 곧 자유의지를 신성한 뜻에 맞추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약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2022년 12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올해의 크리스마스를 거룩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라. 크리스마스는 상업적인 공휴일의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개인적 거룩함에 집중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구유 옆으로 가서 동물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밀짚 위에서 매우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주 작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아라. 너

희 마음을 모든 세속적인 걱정으로부터 - 심지어 너희 자신에게서조차 - 떼어내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에 집중하여라.”

“이렇게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물질적 측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크리스마스 천사가 한 명씩 주어질 것이다. 영혼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천사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이 축제 기간의 상업적인 면에 애착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천사를 불러야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11)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2022년 12월 4일 - 대림 제 2주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크리스마스날 너희 구세주의 도래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도 무시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것에 주목하여라. 환경(분위기)이나 음악, 선물 등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 마음이 예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는 준비된 것이다. 크리스마스 축제를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면서 기념하여라. 그렇게 하면 기쁨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보통 기도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너희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 대신 사심 없이 다른 이들의 선익을 선택하여라.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자신들의 필요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다른 모든 이(의 필요를) 가장 먼저 두면서 첫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였다. 이렇게 하는 너희의 모습을 그저 상상만 해도 나의 마음이 따뜻해 지는구나.”

“나는 너희가 먼저 너희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그런 다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살아갈 때, 너희 가운데 예수를 데려올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3)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체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4)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 2022년 12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축제 기간에 너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육성해야만 하는 믿음이다. 다른 선물들은 모두 너희에게 진리와 더불어 큰 평화와 기쁨을 주지 못한다. 물질적인 기쁨은 공허하며, 오래가지 못한다. 물질적인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에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없다. 너희의 지상 생활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을 소중히 여겨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10)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 2022년 12월 6일 - 성 니콜라오 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12 월 12 일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라는 * 나의 칭호 아래 이 성지에서 기도 모임 중에 발현하는 것을 원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메시지를 줄 것이다. 그런 다음 아바 하느님께서 당신의 ‘세 가지 축복’을** 베풀실 것이다.”

* 2022 년 12 월 12 일 (월),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열리는 오후 3 시 에큐메니컬 기도 모임

**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된’ 축복)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되신 성심의 메시지’의 공지 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2 년 12 월 7 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사탄이 타협으로 너희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사탄은 악을 선처럼, 또 선을 악처럼 보이게 한다. 흔히 사탄이 조장하는 행동 방침은 가장 따르기 쉬운 행동 방침이지만, 쉬운 것이 항상 최선책은 아니다. 계속해서 굳건하게 진리를 고수 하여라.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치명적이다.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그릇된 의견들을 수용함으로써 영원한 파멸을 선택한다.”

“세상에서 너희의 책임이 많을수록 - 곧, 너희가 영향을 주는 영혼들이 더 많을수록 - 진리를 옹호해야 하는 너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의 왕좌에서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반드시 진리를 반영하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9-12)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2022 년 12 월 8 일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사람들이나 장소, 또는 여러 사정 등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탄에 의해 왜곡된 것이다. 내 성심 안에는 모든 평화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 있다. 내 성심은 지극히 순결한 구세주이신 예수 성심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 물듦 없이 기적적으로 잉태된 내 성심의 피난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평화를

를 찾을 수 없다. 이 (원죄 없는 잉태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내 성심이 악의 공격과 모든 유혹으로부터의 너희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내 성심의 피난처 안에서 너희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현대 사회의 혼란 가운데서 평화로운 위안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모성적 포옹과 함께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내 성심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심방이며,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평화적인 정화의 장소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이것은 오로지 내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협력했기 때문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되신 성심의 계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ovekorean.com/xs/uh>).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는 ‘추천 도서 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ovekorean.com/xs/data/76237>).

■ 2022 년 12 월 8 일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이 메시지는 은총의 시간 기도 중에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신비로운 장미’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나는 너희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내 은총의 충만함을 신뢰하도록 청하기 위해 왔다. 해결책들은 나의 입술에서 선언되고 세상에 널리 선포될 준비가 되어 있다. 매 현 순간은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믿어라. 그러면 삶이 바뀔 것이다.”

“오늘 내가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속에 천국으로 돌아갈 때, 너희의 모든 청원들을 나와 함께 가져갈 것이다. 알렐루야!”

■ 2022 년 12 월 9 일 - 성 요한 디다코(후안 디에고) 쿠아우틀라토아친 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하여라. 장애물 때문에, 또는 다른 이들이 똑같은 길을 매우 빠르게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낙심하지 마라. 영혼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부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영성의 깊이를 다른 이들의 여정과 비교하지 말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오늘의 작은 성인인 후안 디에고는* 일생 동안 겸손하였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단순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는 나의 목격중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결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틸마의 기적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는 그의 마음의 겸손과 진리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뢰 때문에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에게서 배워라.”

“다른 이들이 너희의 믿음과 삶의 방식에 마음이 이끌리게 만들 너희의 단순함을 통해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2)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복되신 마리아께서는 멕시코인이었던 후안 디에고 (1474-1548)에게 1531년 12월, 지금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경계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벽지였던 테페약 언덕에서 네 번에 걸쳐 발현하셨습니다.

** 틸마(Tilma)에 관한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 11/29/95, 4/12/03, 6/27/03, 12/12/04, 12/9/14, 12/12/15, 12/12/16, 12/12/19

■ 2022년 12월 10일 -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내 과달루페의 축일에 있을 나의 발현을 위해 특별하게 너희 마음을 준비하기를 청한다. 너희 마음에서 세속적인 관심사들의 잔해를 치워서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중요한 모든 것 가운데에 거처를 정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의 두려움과 죄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나에게 의탁하여라. 너희가 사랑하는 이들을 나의 애정어린 보살핌에 맡기고, 나의 모성적 안배를 신뢰하여라. 나는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더냐?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안고 있지 않느냐? 가장 좋은 준비는 내가 너희에게 와서 주는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너희 가운데의 내 현존의 진리를 쫓아내지 않게 하여라. 내 성심 안에서 너희의 모든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느껴라.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은 더없이 다정한 부름이다.”

■ 2022년 12월 11일. (이 날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2년 12월 12일 /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의 모습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되신 성심이 그분 가슴에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신앙의 보호자이자 온 인류의 동정 어머니인 내가 이 성지에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너희 각자를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적 성심과 화해시키기 위해 왔다.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으로 하느님의 성심 안에 있어라. 진리의 칼을 들고 겸손의 갑옷을 입어라. 너희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늘 주시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하느님의 성심과 일치하여 하나로 뒤희게 하여라.”

“나는 아버지의 진노를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너희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날 가장 중대한 죄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적 교만이다.”

“너희의 믿음은 너희가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를 갈망하여라.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성화에 이르는 길인 보다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세상은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살아있는 성인들이 몹시 필요하다. 너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라.”

“영혼들이 아빠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느님을 알고 또 사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왔다.”

“나는 수세기에 걸쳐 여러 곳에서 많이 발현하였다. 내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다 - 곧, 마음의 회심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람들이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교도적인 방식을 떠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부르고 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선택하는 것이다. 이 발현이 세상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발현이 되게 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성심의 은총의 안배를 통해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을 회심으로 부르며 느끼는 내 극심한 괴로움을 이해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는 것처럼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악은 언제나 세상 사건들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 내 성심의 청원 곧,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새겨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평화가 존재해야 한다. 평화는 모든 선을 앞선다.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속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는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모든 청원들을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져가 내 아드님의 성심의 제단 위에 올려 놓을 것이다.”

우리의 모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 2022년 12월 1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대대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모았다. 나의 뜻을 추구하는 이들은 크게 축복 받았다. 우리가 함께 하는 순간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듯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라. 신앙에 반하는 그릇된 자신의 의견을 중요히 여기는 오만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모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으로 성모를 위로해 주어라.”

“너희 자신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마음을 변화시켜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이들은 모두 나와 함께 모아들인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자들은 흩어 버린다. 나는 너희를 세상의 빛안으로 부른다. 의로움의 길을 부각시키고 어둠의 길을 명시하는 이 빛을 소중히 여겨라. 빛의 자녀들이 되어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6-10)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 2022년 12월 1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어렸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떨어지게 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극심한 괴로움 끝에 성전에서 원로들과 함께 있는 예수를 발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와 성 요셉과 성모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느냐? 성모 마리아는 길을 잃고 떨어져 나간 이런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의 안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은 성전이나 성모 마리아의 성심 근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한때는 신앙을 지녔으나 지금은 길을 잃고 떨어져 나간 자녀들이 성모의 티 없는 성심의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고, 기꺼이 안전한 곳으로 복귀하도록 너희의 기도로 성모를 도와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46-51)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

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 2022년 12월 1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자녀들아, 너희가 올해 진심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면, 너희 자신을 잊고 이 축제 기간에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구유 곁으로 데려가 하느님의 갓 태어난 아드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나와 요셉 사이에 너희를 둘 것이다. 이것이 이 축제 기간에 모든 이가 찾고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

■ 2022년 12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에 보답하여라. 많은 이들이 나의 계명들을 알고 또 심지어 외우고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계명들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너희는 그들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 나의 계명들을 존중하는 너희의 태도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준다. 너희의 순종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이들을 바라보는 나에게 위안을 준다. 지금 이 세대는 모든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나'의 세대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먼저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 다른 모든 이를 기쁘게 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여라. 이것이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1-24)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느님 아버지의 십계명 해설은 한국어 웹사이트의 '주제별 메시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lovekorean.com/xe/subject>

■ 2022년 12월 1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비주의와 첨단 기술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는 세상

에서 혼란해지지 마라. 너희 앞에는 언제나 천국이라는 너희의 목표가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지금은 혼란한 세상의 시민들이지만, 미래의 천국의 시민들로서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써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너희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어야.”

“기뻐하여라. 거룩해지거라.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너희의 목표가 알려지게 해서 다른 이들도 이 숭고한 목표를 가지도록 격려하여라. 다른 이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기도하여라. 다른 이들이 기도의 힘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4-7)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2022년 12월 18일 - 대림 제 4 주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번 대림절이 시작될 때 나는 너희에게 갓 태어난 왕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희생의 ‘짚’을 구유에 넣어달라고 청했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구유 안에 가장 중요한 ‘짚’ 즉, 진리의 짚을 넣으라고 청한다. 이 진리란 곧, 초라한 구유의 예수 탄생, 인류의 구속 안의 예수의 역할, 그리고 구원 안의 예수의 역할에 대한 각 영혼의 수용에 관한 진리를 말한다.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진리가 살아나도록 허락한다면 나의 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위안을 찾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29-32)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 2022년 12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전 이 마지막 날들 동안 너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유 안에 낳인 나의 아들(의 탄생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집중하여라. 내 아들의 탄생은 죄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천국의 문은 결코 활짝 열리지 않았

을 것이다. 예수가 먼저 왕에게는 초라한 왕좌인 구유에 머리를 눕히지 않았다면 구속은 없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 남은 날들 동안 종종 잠시 멈추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너희 각자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하였던 나의 아들에게 감사를 표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2022년 12월 2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내 갓난 아들을 위해 마구간에 초라한 구유를 마련해 놓았듯이 너희도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그래, 나는 구유가 나의 아들이 탄생했던 거룩한 곳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동물들을 구유로 불러 모아 그들의 따뜻한 입김이 예수의 첫 아기 침대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도록 하였다. 또한 천사들을 구유로 보내 첫 아기 침대 주위에 따뜻한 빛을 비추게 하였다. 그러니 보아라,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나의 무한한 신성한 뜻 안에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예상할 수 없는 나의 안배를 위안으로 삼아라. 크리스마스날 너희에게 올 예수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할 때) 내가 너희 마음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준비시켜줄 수 있도록 허락해 나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2022년 12월 2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크리스마스 축일의 영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예수는 너희 하나 하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상에 내려왔다. 또한 너희와 함께 천국을 나누기 위해 지상에 왔다. 나의 진리의 선포의 결과를 익히 알면서도 작은 아기의 모습을 취했던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요즘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진리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나의 선택된 이들은 진리가 모든 이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희생과 기도 하나하나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진리의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 사람들의 거룩한 사랑의 수용에 대한 진리가 사탄이 현재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받은 승리한 것이다. 이것이 이 메시지들과 이 선교회의 목적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4:7-10)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이들의 구원자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8)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 2022년 12월 2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는 연말연시를 위한 모든 준비 가운데 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너희 마음의 준비도 반드시 포함되게 하여라.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역할에 ‘예’라고 대답한 마리아에게 고마워하여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거절을 당했을 때 인내했던 그들의 인내심에 고마워하여라.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의 초라한 공간을 기꺼이 받아들인 데 대해 고마워하여라.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그들의 받아들임이 너희에게 이 거룩한 날의 축제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예’라는 대답이 없었다면 축하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일생 동안 그들을 위한 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이것이 내가 각 영혼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곧,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하여 끝나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1-22)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 2022년 12월 23일. (이 날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2년 12월 24일 - 크리스마스 이브. 요셉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성모와 내가 베들레헴을 향해 여정을 하면서 나는 한낮의 태양이 내리질 때는 마리아를 좀 더 시원하게 해 주고, 밤에는 좀 더 따뜻하게 해 주는 등 마리아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 마리아는 결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실망감은 신뢰하는 사랑 속에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 계획이 펼쳐지기를 기다렸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영혼이 기도로 구해야만 하는 은총이다. 사탄이 일으키는 낙심에 맞서 기도하여라. 신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에 맞서 기도하여라. 은총의 친교를 기다려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6-7)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 2022년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매 순간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임을 깨달아라. 어떤 순간은 더욱 깊은 회심의 체험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현 순간은 과거의 누군가를 - 심지어 너희 자신이나 너희가 회개하기 전에 저질렀던 어떤 죄들을 - 용서하도록 너희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 현 순간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서 벗어나 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총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현 순간은 이 크리스마스날, 내가 너희 하나하나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너희 삶 속의 현 순간의 영향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2년 12월 26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오늘 기쁘고 평화롭다면 그것은 너희가 예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였기 때문이다. 가끔씩 너희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다. 나와 나의 아들은 너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지님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너희의 모든 노력에 보답한다. 우리의 기쁨과, 너희의 사랑 가득한 노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선의로 인해 평화를 누릴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들은 너희의 지극히 작은 정성에도 매우 고마워한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13-14)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 2022년 12월 27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새해에는 너희가 일하는 시간에도 자주 기도를 바치면서 첫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너희 마음속에 계속 살아 있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속하고, 나의 것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사탄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나의 뜻에 따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인도할 수 있다.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기를 원하면, 너희는 나를 알아볼 것이다.”

“기도를 반대하는 것이나 사람은 모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루가 시작될 때 이 점을 명심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4-7)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2022년 12월 28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4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자녀들아, 너희 하나하나가 구유 옆에서 나와 요셉과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가 현 순간을 내 갓난 아들과 함께 보냈던 그 작은 마구간 안에는 순수한 평화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완전한 초탈이 존재했다. 어떤 세속적인 걱정도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했다. 더이상 추위나 악취도 없었다. 그 작은 공간은 따뜻한 빛과, 낮설지만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했다. 다른 장소로 가거나 또는 다른 사정이나 문제를 돌봐야 한다는 내면의 충동도 없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분위기를 상상할 수도 없다.”

“자녀들아, 너희가 세속적인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을 더 많이 채울수록 더 쉽게 죄에 굴복하게 된다. 주님의 안배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지 마라. 너희를 위한 그분의 뜻은 완전하며, 언제나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하신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2022년 12월 29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들은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존중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누구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그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의무이며, 나는 그의 심판 때 그것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가 동의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소통은 친교의 열쇠다. 너희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사랑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마음을 닫는다면, 이 또한 거룩한 사랑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다른 모든 이들을 참을성 있고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기심 없이 볼 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13:4-7)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 2022년 12월 30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6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메시지들과 이 성지에 수반되는 모든 은총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지근함에서 거룩한 사랑에 대한 열렬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거룩한 사랑은 ‘선과 악의 마지막 전투(Apocalypse)’* 전에 서둘러 회개하라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향한 부름이다. 회개하라는 이 부름 안에는 이 모호하고 어수선한 시대에 어머니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어야 하는 나 자신을 향한 부름도 포함되어 있다. 영혼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또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를 잘 모를 때, 그가 계속해서 개인적 거룩함과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랑이 그 나침반이 되어 준다. 거룩한 사랑은 어려운 결정들을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처가며 발전하는 데 필요한 분명한 선택들로 바꿔준다.”

“의로움의 길에서 영혼들을 낚아채기 위해 사탄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랑은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불빛이다. 아무도 죄를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영혼은 저마다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 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12:14)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기록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유다 17-2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

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 선과 악의 마지막 전투 (Apocalypse) 와 ‘계시된 축복’ (Apocalyptic Blessing) - 9/10/19, 9/12/19, 10/22/19, 11/18/19, 11/19/19, 11/21/19, 12/9/19 메시지 참조: <http://holyllovekorean.com/xe/message/80876>

**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 <http://holyllovekorean.com/xe/uh>, 소책자: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237>

■ 2022년 12월 31일 - 성탄 팔일 축제 제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일은 새해의 문을 여는 날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려면 너희와 나의 관계에서 너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를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라.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어떤 부분이 너희를 실망시키느냐? 무엇이 너희의 기도를 방해하느냐? 너희가 좀 더 거룩한 사랑이 되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겠느냐? 너희가 가장 개선해야 할 덕은 어떤 덕이냐? 너희 삶의 교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너희는 모두 각자 영적 단점이 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새해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너희의 어떤 단점들이 은총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식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 은총이 너희의 영적 단점을 극복하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2-15)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성모 (Holy Mother):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또는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매일 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자비심의 기도 (오후 3시) / 목주기도 (저녁 7시)

기도 모임에서 천상이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베풀 때마다 기도 모임 참가자는 이 세 가지 축복의 혜택을 모두 다 받게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GIFT SHOP)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 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 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이자 신비주의자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10: 4-1/8" x 9-1/2")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TWO-OUNCE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 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매주 목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HolyLoveKorean@gmail.com

웹사이트: www.hol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낙태는...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해결책의 일부가 되십시오

태아 목주기도를 바치십시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www.rosaryoftheunborn.com

